

원저

古代 經脈診斷法 중 三部九候診에 관한 研究

허금범 · 윤종화 · 김갑성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학교실

Abstract

A study on three bu(部) nine hu(候) pulse diagnosis(三部九候診)

Keum-Bum, Hur · Jong-Hwa, Yoon · Kap-Sung, Kim

Department of Acupuncture & Moxibustion,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ersity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 investigation about alteration and meaning of three bu(部) nine hu(候) pulse diagnosis(三部九候診)

Methods : We referred to prescriptions from anciant to modern such as Naekyung(內經) and Nankyung(難經)

Results and Conclusion :

1. Three bu(部) nine hu(候) pulse diagnosis(三部九候診) is more important pulse diagnosis method than any other method in Naekyung(內經)
2. Three bu(部) nine hu(候) pulse diagnosis(三部九候診) is a simplized twlve meridian pulse diagnosis method based on Samjae philsophy(三才思想)
3. Three bu(部) nine hu(候) pulse diagnosis(三部九候診) is useful for venesection theraphy based on Naekyung(內經) and it is demolished with the progress of Chon-gu pulse diagnosis method(寸口脈診法)

Key words : three bu(部) nine hu(候) pulse diagnosis(三部九候診), Naekyung(內經), Nankyung(難經), Samjae philsophy(三才思想), venesection theraphy.

* 본 연구는 동국대학교 논문게재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 졌음.

· 접수 : 2002년 4월 24일 · 수정 : 5월 3일 · 채택 : 2002년 5월 18일

· 교신저자 : 윤종화, 경주시 용강동 357 번지, 동국대학교 부속한방병원 침구1과 (Tel. 054-770-1257)
E-Mail : item0916 @ chollian.net

I. 緒論

先秦의 醫家들은 靜脈의 觀察과 動脈의 搏動을 按診하여 觸知할 수 있는 血管을 中心으로 經脈을 認識하여 經脈의 度量長短의 測定에 竹筴을 利用하였고 脈診과 經脈의 脈의 意味는 混在되어 있었으며 B.C. 2 C 頃의 西漢에 이르러 脈診은 經脈에서 分厘되어 脈學이 성립되었다^{1), 2), 3)}.

脈診은 經脈走行을 確認하는 經脈楯診의 過程中에서 萌芽하였다고 생각되며 全國時代의 扁鵲이 脈診을 行한 記錄(B.C 5 C)과 西漢時期的 倉公은 《黃帝扁鵲之脈書》의 古代 脈書를 傳受받은 記錄(B.C 180 年頃)이 있다^{3), 4)}.

최근 發掘된 馬王堆(B.C. 168년) 醫書 중 《陰陽》 《足臂》의 灸經과 《脈法》, 《陰陽脈死候》는 脈診에 對한 最初의 專門書籍으로 診脈의 部位, 方法 및 先秦時代의 比較 脈診法등이 敍述되어 있다^{5), 6)}.

《素問》 《靈樞》의 經脈脈診은 十二經脈脈診, 三部九候診 및 人迎脉口診 등으로 볼 수 있으며, 馬⁷⁾는 《黃帝內經》의 三部九候診, 人迎脉口診 및 《傷寒論》의 寸口脈과 趺陽脈, 太溪脈을 比較하는 脈診法은 《脈法》의 比較 脈診法의 영향이라 하였고, 龍²⁾은 “《素問·視從容論》의 ‘《脉經》上下篇’은 《素問》의 脈診에 關한 內容으로 三部九候診이 包含되어 있을 것으로 推論할 수 있다.” 하였다.

그리고 王⁸⁾은 經脈의 楯診過程의 動脈搏動의 按診에서 由來된 遍身診法의 十二經脈脈診과 三部九候診은 상호 다른 學派의 診斷法이며 時代的으로 同時代 혹은 十二經脈脈診이 조금 앞선 것으로 推測하였고, 특히 登⁹⁾은 三部九候診은 人迎寸口診이 발전된 診脈法으로 鍼灸經穴治療의 중요한 整體診察法으로 보았다.

이에 論者は 十二經脈의 動脈의 變動을 觸診하는 遍身診法의 十二經脈의 動脈處에 天地와 人間의 關係를 說明한 三才思想을 바탕으로 人體를 上中下의 天人地의 三部九候로 區分하여 診斷하는 脈診法인 “三部九候診”의 意義 및 演變에 關하여 研究하여 報告합니다.

II. 本論

1. 三部九候診

(1) 十二經脈의 動脈處

十二經脈의 脈診은 中國의 古書籍에는 없으며 先秦時代의 醫學文獻인 《陰陽十一脈灸經》 《脈法》, 秦 兩漢時代의 文獻인 《素問·三部九候論》 《靈樞·經脈》 등의 《內經》, 西漢時代의 著作인 《難經》 및 唐代의 《千金翼方》 등의 古醫籍을 通하여 推論할 수 있다.

馬王堆 漢墓(B.C 168년)의 出土 醫書 중 《足臂》 《陰陽》의 灸經, 《脈法》 및 《陰陽脈死候》는 現存하는 經脈, 經脈脈診, 治療 및 豫後에 關한 最初의 專門書籍이며, 診脈의 目的, 部位, 方法 및 脈象과 疾病의 關係 등을 論述하고 있다.

古代의 脈診方法들을 聚合하여 獨取寸口說을 立論한 《難經·一難》에서 “十二經皆有動脈”하여 十二經脉에는 各 經脈을 按診할 수 있는 動脈處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10), 11)}, 唐代의 《難經集注¹²⁾》, 元代의 《難經本義¹³⁾》, 清代의 《難經洄注箋正¹⁴⁾》 등의 《難經》 註釋書에 약간의 差異는 있지만 十二經脈의 動脈處가 記載되어 있고, 《針灸甲乙經》, 《銅人腧穴針灸圖經》, 《醫宗金監·刺灸心法要訣》 등의 針灸書籍에 “動脈應手” 하는 經穴이 記錄되어 있다.

(表. 1) 十二經脈의 動脈部位

十二經	呂廣	楊玄操	滑壽
足太陽	委中	委中	委中
足少陽	耳前	下關, 懸鐘	下關, 聽會
足陽明	趺上	衝陽, 人迎, 大迎	衝陽, 人迎, 大迎, 氣衝
手太陽	目外眦	瞳子膠	天窗
手少陽	客主人	客主人, 聽會	和膠
手陽明	口邊, 陽溪	地倉	合谷, 陽溪
足厥陰	人迎	面骨 (回骨)	太衝, 五里, 陰廉
足少陰	內踝下	內踝上五寸間	太溪, 陰谷
足太陰	髀上	箕門	箕門, 衝門
手少陰	掖下	極泉, 靈道, 少海	極天
手心主	勞宮	勞宮	勞宮
手太陰	太淵	太淵, 尺澤, 俠白, 天府	中府, 雲門, 天府, 俠白

近代의 張¹⁴⁾은 “淺部の 動脈處는 ‘捫而可得’ 하면 頭額 項, 顛, 肩, 背, 臂, 頸, 手指, 足跗 및 足趾間에서 觸知할 수 있다” 하였고, 《千金翼方·色脈·脈診大意¹⁵⁾》 “手足三陰三陽十二經皆有動脈” 하여 十二經脈에는 各 經脈을 按診하는 動脈處가 있음을 推斷할 수 있다.

《難經》以後의 《針灸甲乙經》《千金方》《銅人腧穴針灸圖經》 등에 記載된 十二經脈의 經穴에 “動脈應手”의 部位는 差異는 있지만 《難經》의 注家들인 呂廣, 楊玄操, 滑壽등이 언급한 動脈의 搏動處이며, 張¹⁴⁾은 “動脈은 無時無動하고 古人들이 言及한

動脈處는 모두 肌肉의 淺表에 있는 動脈의 按診處들은 聯關關係가 없으므로 古醫籍의 動脈處의 差異를 穿鑿할 理由가 없다” 하였다.

한편, 馬¹⁶⁾는 “古人의 診脈은 手에서만 局限하지 않고, 斗面手足의 動脈處에서 診脈하지 않은 것이 없다.” 하였고, 葉¹⁷⁾은 “身體의 動脈處는 《明堂針灸圖》《甲乙經》 등의 醫籍에는 20 餘穴이 있으며 10 餘穴만이 診脈에 利用되었고 10 餘穴중에 足脈의 太溪 衝陽 太衝이 重要하다” 하였고, 徐¹⁸⁾는 “手太陰의 太淵, 足陽明의 人迎, 足少陰의 太溪의 動脈 등 3곳 以外의 十二經脈의 動脈處는 단지 經穴의 眞僞를 살피는 取穴法으로 利用되고 있다” 하였다.

(2) 三部九候診의 意義

三才思想은 《孟子·公孫丑下》《莊子·齊物論》《老子·二十五章》 등의 先秦以前의 認識이며 《淮南子·天文訓》에서 思想的 體系가 세워졌으며⁶⁾, ‘三’을 萬物發生의 基本數로 생각하였고⁸⁾, 《素問·離合眞邪論》 “天有宿度, 地有經水, 人有經脈” 하여 하늘의 28 宿의 별자리, 땅의 《靈樞·經水》의 12 經水 및 人體의 十二經脈으로 天人地의 關係를 설정하였고, 張¹⁹⁾은 “人體에는 天은 皮膚에 應하고, 地는 肉에 應하고, 人은 血液에 應하며, 一部에 皮, 肉, 血液이 있다” 하였고, 《呂氏春秋·有始覽篇⁸⁾》에서 “三三은 九” 하여 九는 無限 無數의 意味한다” 하였다. 그리고 張¹⁹⁾은 “人體에는 九가 九野, 九臟에 應하며 《素問·三部九候論》에서 九候는 神五臟 (肝藏魂, 心藏神, 脾藏意, 肺藏魄, 腎藏志)·形臟四(胃 小腸 大腸 膀胱)²⁰⁾에 應한다” 하였다.

《素問·著至教論》 《素問·氣交變大論》 “《上經²⁾》曰, 夫道者, 上知天文, 下知地理, 中知人事, 可以長久.” 하여 三才思想이 先秦時代의 思想體系로서 先秦醫學에 影響이 있었음을 示唆하고 있다²¹⁾. 그리고 《素問》《靈樞》에서는 人間과 天地自然의 關係를 重視하여 형성된 三才思想을 收容하여 三陰三陽

論, 九針論의 根底의 醫學思想으로 經脈, 針灸 및 脈學 등의 醫論을 確立하였다.

三部九候診은 十二經脈脈診을 天人地의 三才思想을 바탕에 두고 整理한 것이라 생각되며, 王⁸⁾은 “三才思想의 概念이 古代醫家들의 脈診法에 수용되어 十二經脈의 搏動處를 전부 診脈하지 않고서도 三部九候를 診하면 身體의 모든 部位를 觀察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脈診部位의 名稱을 天部, 人部, 地部로 하였을 것으로 推測된다” 하였다.

그러나 三部九候診은 煩雜한 十二經脈脈診과 비슷한 방법 혹은 十二經脈脈診을 더욱 簡便化시킨 方法으로 보이지만 十二經脈脈診과는 別途의 思想的 體系의 새로운 脈診法이며, 王⁸⁾은 “十二經脈脈診과 三部九候診은 상호 다른 學派의 診斷法이며 時代적으로 同時代거나 十二經脈脈診이 조금 앞선 것으로 推測할 수 있다.” 하였다.

《素問》의 醫學思想은 窮極의으로 豫防醫學에 있었고, 三部九候診을 行하면 發病以前에 邪에 對한 罹患을 알 수 있어서 早期治療가 가능하므로 《素問·八正神明論》 “三部九候爲之原, 九針之論, 不必存也. …… 上工教其萌芽, 必先見三部九候之氣, 故曰上工. 下工教其已成, 救其已成者, 言不知三部九候之相失, 因病而敗之也.” 하였고, 이를 보면 三部九候診은 豫防 醫學의인 面에 有用하게 利用할 수 있는 脈診法으로 생각된다.

(3) 三部九候診의 部位

三部九候에서는 十二經脈의 모든 變動을 詳細히 살피는 것은 困難하다. 그러므로 十二經脈에서 九候를 除外한 小腸經, 心包經, 膀胱經 등의 三經의 變動은 직접 알 수 없다. 그러나 楊²²⁾은 “十二經脈에서 厥陰은 心臟과 差異가 없어 九候에 넣지 않고, 上部의 天人地의 頭角, 耳目, 口齒의 氣를 살피는 三候를 제외하고, 中部의 天人地의 肺, 心, 大腸 및 下部의 天人地의 肝, 腎, 脾의 表裏經인 手太陽, 手

少陽, 足太陽, 足少陽, 足陽明의 五經은 臟을 診斷하면 表를 알 수 있어 九候에 넣지 않는다” 하였다.

(表. 2) 三部九候診의 部位

《內經》의 三部九候診의 部位			
		上 《素問》	《太素·卷14》
		下 王氷注	
上部	天	兩額之動脈 額部兩旁動應於手	兩額足少陽(顛厥穴), 陽明(頭維穴)二脈之動
	地	兩頰之動脈 顙部 가까이 부분	兩頰足陽明 (地倉, 大迎穴)
	人	耳前之動脈 耳前陷中動應於手	目後耳前手太陰, 手少陽, 足少陽三脈在和髻中動.
中部	天	手太陰 經渠	手太陰脈이 뛰는 中府, 天府, 俠白, 尺澤 4군데
	地	手陽明 合谷	手陽明脈 검사해서 움직임이 없는 곳 (呂廣云, 動在口邊)
	人	手少陰 神門	手少陰이 뛰는 極泉, 少海
下部	天	足厥陰 五里(남자) 太衝(여자)	足厥陰脈이 뛰는 曲骨 行間 衝門
	地	足少陰 太谿	足少陰이 뛰는 太谿
	人	足太陰 箕門	足太陰脈이 뛰는 中府 箕門 五里 陰廉 衝門 雲門

三部九候診의 部位는 《素問·三部九候論》의 注家들의 部位에 對한 見解의 差異가 있다. 隋代의 楊上善의 《黃帝內經太素²²⁾》, 唐代의 王氷의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²³⁾》, 明代의 張介賓의 《張氏類經²⁴⁾》, 吳昆의 《黃帝內經素問吳注評釋²⁵⁾》, 清代의 張志總의 《素問集注¹⁹⁾》 및 現代의 《黃帝內經素問校釋²⁰⁾》 등의 歷代의 代表的인 注家들의 三部九候의 部位에 對한 見解의 差異를 考察하였다.

上部の 天地人

① 上부의 天候인 “兩額之動脈”의 部位와 候診하는 經을 《太素》에서는 懸釐에서 足少陽, 頭維에서 足陽明, 《王注》에서는 足少陽, 《類經》에서는 顛厥에서 足少陽, 《吳注》에서는 巨髎에서 足陽明, 《集注》에서는 足太陽으로 보았다. 《校釋》에서는 《類經》의 顛厥의 足少陽을 따랐다.

그리고 《素問·三部九候論》은 三才思想이 유행한 西漢의 著作으로 經脈에 穴의 配屬, 流注의 成立, 및 經穴의 交會關係는 성립되지 않았다. 頭頂에는 動脈을 觸知할 수 있는 部位가 없어 兩額의 動脈에서 頭角之氣를 診候하였다고 推測할 수 있으며, 《集注》에서는 “兩額의 動脈은 頭頂으로 循環하고, 足太陽膀胱經은 “其經脈上額交顛, 會于腦, 出于項”하고 陽을 主宰하여 頭角之氣를 診候할 수 있으며 上부의 天을 主管한다” 하였다.

② 上부의 地候인 “頰之動脈”의 部位와 候診하는 經을 《太素》에서는 大迎에서 足陽明, 《王注》에서는 巨髎에서 足陽明, 《類經》에서는 地倉, 大迎에서 足陽明으로 보았다. 《校釋》에서는 《太素》의 大迎의 足陽明을 따랐다.

그리고 天의 地候의 見解는 注家들의 意見이 部位의 差異는 있지만 足陽明으로 一致된다. 收穀의 柔和之氣의 胃氣는 胃府에서 發生하며 “其經脈起于 鼻交頰中, 上入齒中, 還出挾口環唇下” 하여 口齒之氣를 候診한다. 그러므로 大迎의 部位에서 足陽明의 診候가 合當하다 생각된다. 《集注》에서는 “地는 肌肉에 應하며 足陽明은 土이며 肌肉을 主管하며 天의 地가 된다” 하였다.

③ 上부의 人候인 “耳前之動脈”의 部位와 候診하는 經을 《太素》에서는 目後耳前의 和髎에서 手太陽, 手少陽, 足少陽의 三脈, 《王注》에서는 耳前에서 手少陽, 《類經》에서는 和髎에서 手少陽, 《集註》에서는 耳前의 陷谷部位에서 手太陽小腸經으로 보았다. 《校釋》에서는 和髎와 耳門은 모두 耳前에 있다 하여 《太素》《類經》를 따랐다.

그리고 耳前에는 手少陽의 耳門, 手太陽의 聽宮, 足少陽의 聽會의 三穴이 있다. 三穴 중에서 手太陽經의 “其經脈上目銳者, 入耳中” 하며 聽宮은 三焦經, 膽經, 小腸經의 三經의 交會穴이며²⁶⁾, 《靈樞·經脈》 “手太陽小腸之脈……是主液所生病者……耳膿, 目黃……” 하여 小腸手太陽之脈은 液의 生産, 分配를 調節하고, 血을 主管하는 心과 表裏經이 된다. 이와 같은 觀點에서 보면 《集注》에서 “小腸經의 聽宮에서 診候한다”는 見解도 一理가 있다.

上부의 三候는 頭角之氣를 診候하는 太陽之氣, 口齒之氣를 診候하는 陽明之氣, 耳目之氣를 診候하는 手太陽之氣로 陽을 貯藏하는 形三臟²⁰⁾(胃, 膀胱, 小腸) 및 膈, 喉, 頭, 手의 上부의 氣를 診斷하는 方法이다

中부의 天地人

① 中부의 天候인 “手太陰”의 部位와 診候하는 經은 《太素》에서는 中部, 雲門, 天府, 俠白의 四處에서 肺氣를 診候, 《王注》에서는 掌後의 寸口中의 經渠附近의 動脈處, 《集注》에서는 兩手の 氣口의 動脈은 手太陰脈이라 하였다. 《校釋》에서는 掌後의 寸口動脈의 肺經의 脈氣가 지나가는 經渠穴處을 따랐다.

그리고 中부의 天候의 見解는 注家들의 意見이 經渠附近의 動脈處의 部位와 手太陰經으로 一致된다. 《集注》에서는 “肺는 乾金에 屬하며 五臟은 肺에 응하고 身體의 氣의 運行을 主管하여 中부의 天을 主宰한다” 하였다.

② 中부의 地候인 “手陽明”의 部位와 診候하는 經을 《太素》에서는 《難經》의 注家인 呂廣의 注를 引用하여 口邊에서 大腸의 氣를 診候, 《類經》에서는 手의 大指次指的 岐骨間의 動脈處로 合谷附近의 大腸經의 脈氣가 行하는 곳이라 하였다. 《校釋》에서는 《類經》을 따랐다.

그리고 中부의 地候의 見解는 注家들의 意見이

合谷穴 附近의 部位와 手陽明經으로 一致된다. 《類經》에서는 “大腸小腸皆屬于胃, 胃脘通于胸中” 하였고, 《集注》에서는 “胸中, 膻中也. 宗氣之所取也. 宗氣者, 陽明收穀之所資生. 故地以胸中之氣” 하였고, 陽明은 土中에 있어 中部의 地候를 主管한다.” 하였다.

③ 中部의 人候인 “手少陰”의 部位와 診候하는 經을 《太素》에서는 極泉, 小海의 二處에서 心氣를 診候, 《王注》에서는 掌後의 銳骨端의 神門穴 附近의 動脈處로 《靈樞·邪客》 “其外經病而臟不病, 故獨取其經于掌後銳骨之端”의 處라 하였고, 《集注》에서는 銳骨端의 動脈으로 手少陰心脈이라 하였다. 《校釋》에서는 《王注》를 따랐다.

그리고 中部의 地候의 見解는 注家들의 意見이 神門穴 附近의 部位와 手少陰經으로 一致된다. 《集注》에서는 三은 人에 應하고, 人은 血脈을 主管한다. 또 心은 血脈의 氣를 主管하고 藏하며 肺下에 있다. 그러므로 中部의 人候를 主管한다 하였다.

中部의 三候는 膈上의 二神臟(肺, 心)과 中土의 二形臟(大腸, 胃)을 診候를 意味한다. 胸中, 膻中은 宗氣가 모이는 場所이며 宗氣는 胃腑에서 資生하므로 地部에서 胸中之氣를 診候한다. 또 張²⁴⁾은 “大腸小腸皆屬于胃, 胃脘通于胸中” 하여 大腸의 脈에서 胸中之氣와 胃氣도 兼診할 수 있으며 陽明의 脈은 “下入缺盆, 絡肺貫膈” 하여 胸中之氣를 診候할 수 있다

下部의 天地人

① 地部의 天候인 “足厥陰”의 部位와 診候하는 經을 《太素》에서는 曲骨, 行間, 衝門의 三穴의 附近에서 足厥陰, 《王注》에서는 男은 毛際의 外側 羊矢下 一寸半의 五里穴 附近, 女는 太衝穴 附近에서 肝脈, 《集注》에서는 五里附近의 動脈處에서 肝脈이라 하였다. 《校釋》에서는 《王注》를 따랐다.

그리고 中部의 天候의 見解는 注家들의 意見이 男子는 五里 附近의 動脈處, 女子는 太衝穴 附近의 動脈處의 部位와 足厥陰經으로 一致된다. 《集注》에서는 厥陰은 陰中の 少陽으로 春節의 生氣를 主宰하므로 下部의 天候를 主管한다 하였다.

② 地部의 地候인 “足少陰”의 部位와 診候하는 經을 《太素》에서는 足少陰의 太谿의 動脈處는 腎氣를 診候, 《王注》에서는 足內踝後의 跟骨上의 陷谷處의 動脈處, 《集注》에서는 內踝後의 太谿穴 附近의 動脈處에서 足少陰腎脈을 診候한다 하였다. 《校釋》에서는 腎經의 脈氣가 지나가는 內踝後의 踝骨側의 太谿附近의 動脈處의 動脈處를 따랐다.

그리고 中部의 地候의 見解는 注家들의 意見이 太谿穴 附近의 動脈處의 部位와 足少陰經으로 一致된다. 《集注》에서는 腎은 牝臟으로 下部에 있어 下部의 地를 主管한다 하였다.

③ 地部의 人候인 “足太陰”의 部位와 診候하는 經을 《太素》에서는 中府 箕門 五里 陰廣 衝門 雲門의 六處에서 足太陰, 《王注》, 《類經》 《吳注》에서는 箕門附近의 動脈處에서 脾脈, 衝陽附近의 動脈處에서 胃氣를 診候한다하였다. 《校釋》에서는 脾經이 지나가는 箕門附近의 動脈處를 따랐다.

그리고 中部의 地候의 見解는 注家들의 意見이 箕門附近의 動脈處의 部位와 足太陰經으로 一致된다. 《集注》에서는 “脾는 陰臟으로 腹部의 中間에 있어 下部의 人候를 主管한다” 하였다.

下部의 三候에는 膈下의 三神臟(肝, 脾, 腎)을 診候한다. 그리고 上部의 地候에서는 陽明의 陽明早氣 즉 陽熱之氣를 診候하고, 下部의 地候에서는 胃氣는 收穀柔和之氣를 診候한다. 그리고 榮衛氣血은 胃氣에서 資生하고 脾와 胃는 膜으로 相連하여 脾脈에서 胃氣를 診候하고 胃脈에서 脾氣를 診候할 수 있다.

(4) 三部九候診의 方法

三部九候診은 《素問》에만 나타나고 《靈樞》《難經》에는 없으며 《素問·三部九候論》, 《素問·寶名全形論》, 《素問·八正新明論》, 《素問·離合眞邪論》, 《素問·繆刺論》, 《素問·調經論》, 《素問·四時刺逆從論》, 《素問·鍼解篇》 등에서記載되어 있는 篇數를 보아도 《素問》에서 比重이 있는 脈診法이다. 《素問·離合眞邪論》에는 “經脈에 邪가 있으면 脈이 動하여 手의 寸口에서 먼저 살펴 脈의 大小를 보아 脈이 大하면 邪에 罹患된 것으로 判斷하고 三部九候로 按診하여 邪氣의 左右, 上下 및 陰陽의 經脈을 진단한다.” 하고, 《素問·三部九候論》 “決死生, 處百病, 調虛實, 除邪疾” 하여 三部九候診의 意義를 定義하였다.

決死生은 “觀其形氣, 別其陰陽, 調其血脈, 察其臟腑, 以知死生之期” 하여 身體의 肥瘦와 脈의 大小의 相關關係, 足踝彈診^{20), 22)} 등으로 不病, 病 및 死證을 區分, 七診死證 및 四季死證등으로 生死를 診斷하고, 處百病은 “表裏陰陽, 寒熱虛實之爲病也” 하여 三部九候의 上下左右를 살펴 小大疾遲熱寒陷의 九候에 脈象으로 病邪에 罹患된 臟腑를 찾고, 調虛實은 “實則瀉之, 虛則補之”의 治法이며, 除邪疾은 “去血脈, 除邪風” 하여 刺絡療法으로 疾病을 治療한다¹⁹⁾.

그리고 三部九候診을 言及한 《素問·三部九候論²⁰⁾》 “必先去其血而後調之”, 《素問·血氣形志²⁰⁾》 “凡治病必善去其血”의 文句가 있다. 또 《素問》의 治療體系의 總論이라 해야 할 《素問·藏氣法時論²⁰⁾》에서도 基本的인 治療法으로 刺絡療法이 記載되어 있다. 이로 보면 三部九候診은 病邪의 罹患에 刺絡療法이 中心이 되고 毫針의 治療가 補助가 되는 治療法에 利用되는 診脈法이다.

특히 上中下의 三部의 關係 중 胃氣를 중시하여 《素問·三部九候論》 “中部之候雖獨調, 與衆臟相失者死, 中部之候相減者死” 하였다. 《張氏類經·六卷·第二十五注²⁴⁾》에서 “中部의 脈과 頭部, 足部의 臟器

의 脈이 相失하면 難治이며, 中部의 脈이 上部 下部의 脈보다 減少하면 中氣가 大衰하여 역시 重病이다” 하였다. 또 《素問·離合眞邪論》 “審捫循三部九候之盛虛而調之 …… 調之中部, 以定三部” 하였다. 그리고 吳²⁵⁾는 “三部九候는 胃氣의 衝和作用으로 調節한다” 하였고, 張¹⁹⁾은 “三部의 中에는 모두 陽明의 胃氣가 있어 天地人의 三者는 上下의 交互의 理致가 있다” 하였다.

《素問·三部九候論》의 足內踝上의 動脈彈診은 《脈法》의 “相脈之道”와 類似하고, 《素問·三部九候論》의 察九候의 比較脈診法은 《脈法》의 “他脈盈, 此獨虛 …… 他脈靜, 此獨動, 則主病”의 十二經脈의 動脈診의 比較脈診法에서 演變痕迹을 볼 수 있다

(5) 三部九候診의 演變

三部九候診은 現存하는 醫書에서는 단지 《素問》에만 있으며 後世에 三部九候診을 행한 醫家를 볼 수 없다. 이는 《素問》의 治療法의 主軸이 刺絡方法임을 有意하여 생각하여 보면 治療法의 變遷에 따라 針이 발견되어 《脈法》의 灸, 刺絡의 方法을 代替하는 것에 起因한다고 推論할 수 있다.

刺絡을 主로 하고 毫針이 보조가 되는 《素問》의 治療方法에는 三部九候診이 有用하며, 毫針의 利用度가 증가하고 漠然한 經絡治療에서 經穴의 縱橫構造關係가 확립되어 十二經脈의 三陰三陽에 따른 詳細한 病變現象을 알 필요가 생겼고, 刺絡과 毫針의 治療比率이 비교적 大等한 《靈樞》에서는 人迎脈口診이 有用하며, 井榮輸經合의 穴에 五行의 性格을 부여하여 陰陽五行學說을 應用하는 《難經·六十九難》에서는 寸口診을 採用하였기 때문에 三部九候診은 점차로 消滅된 것이라 推測된다⁶⁾.

한편 《難經·三難¹⁰⁾》 “脈有三部九候, 各何所主之? 然, 三部者, 寸關尺也, 九候者 浮中沈也, ……”의 意味를 滑¹³⁾은 “獨取寸口說의 寸口脈의 寸·關·尺의 各 部位에 浮中沈으로 《素問·三部九候論》의 三部九候診의 三部九候를 收容하였다.” 하였고, 張²⁴⁾

은 “全身의 三部九候診, 《難經·十八難》의 寸關尺의 浮中沈의 三部九候法 및 仲景診法의 ‘上의 寸口, 下의 跗陽’의 方法은 三部九候의 動脈을 取하여 臟氣를 診斷하여 邪를 除去하는 方法은 같은 理致이다” 하였다.

三部九候診은 《脈經·卷四·辨三部九候脈證²⁷⁾》에서 氣口脈의 寸關尺에 天人地의 《難經》의 三部九候論에 浮, 沈, 牢, 結, 遲, 疾, 滑, 澁脈에 따라 證을 分類하고 命門, 四時脈 및, 尺膚診과 結合하여 運用되었다. 또 《脈法》에는 言及이 없는 身體의 肥瘦와 脈의 大小에 따른 形氣의 虛實을 觀察하는 方法은 《千金翼方·色脈·脈診大意¹⁵⁾》에 人의 大小, 長短, 性質의 緩急 및 形의 苦樂으로 擴大되어 脈診에 收容되었다. 또한, 三部九候診의 上下左右의 診斷과 《素問·脈要精微論》 “上竟上, 下竟下”의 概念이 結合되어 氣口脈에서 運用할 수 있으므로 《診家樞要》에서 “病脈이 上部에 있으면 上病, 下部에 있으면 下病, 左部에 있으면 左病, 右部에 있으면 右病이다.” 하였다¹⁴⁾.

그리고 《脈經·卷十·手檢圖²⁷⁾》에는 奇經八脈의 脈診法인 氣口九道脈이 記載되어 있으며 氣口九道脈의 部位를 《素問·脈要精微論》의 尺部診의 臟腑의 定位方法과 같은 內外의 用語로 十二經脈과 奇經八脈의 部位를 定位한 것은 《難經·三難》에 三部九候診을 寸關尺의 浮中沈으로 解釋한 方法을 應用한 것으로 보이며 《身經通考²⁸⁾》 《醫編²⁹⁾》 《雜病原流犀燭³⁰⁾》 등에서는 氣口九道脈의 內外의 의미를 脈의 浮沈으로 解釋하였다.

III. 考察

최근 經脈의 起源에 對하여 先秦의 《足臂十一脈灸經》, 《陰陽十一脈灸經》은 “視之可見” 할 수 있는 靜脈의 觀察에서 始作하여 《素問·離合眞邪論》

“捫而循之, …… 彈而怒之” 등의 “切之可得” 하여 具體적으로 觀察할 수 있는 血管과의 相關성을 提起하고 있다^{1), 2)}.

登⁹⁾은 “先秦 醫家들은 經脈과 脈診의 意味가 分利되지 않고 混再되어 있어 經脈橋診의 動脈의 搏動處에서 經脈의 走行을 確認하는 過程에서 脈診의 概念이 萌芽하였다.” 하였고, 馬³⁾는 “經脈과 絡脈의 發見이 促進되어 經絡의 概念이 成立되고 또 脈學의 飛躍的인 發展으로 脈은 經脈의 ‘脈’에서 脈診의 ‘脈’의 意味로 代替되어 西漢初期에 脈學이 成立되어 獨立되었다.” 하였다.

脈診의 起源은 全國時代의 扁鵲이 脈診을 行한 記錄(B.C 5세기)으로 推測할 수 있으며 西漢時期의 倉公은 《黃帝扁鵲之脈書》의 古代 脈書를 傳受받아 繼承한 記錄(B.C 180年頃)이 있으며⁴⁾, 龍²⁾은 “《素問》에 引用된 古代의 醫書 중에서 《素問 視從容論》의 ‘脈經 上下篇’은 倉公이 傳受한 醫書 十部 중 一部의 脈書일 가능성이 있다” 하였다.

한편 《史記·扁鵲倉公列傳》의 B.C 2세기 倉公 醫案의 脈診은 대부분 寸口診이며, 葉¹⁷⁾은 “《傷寒論》의 序文의 《素問》《九卷》《八十一難》은 漢代 以前의 著作으로 倉公의 《扁鵲之脈書》이다.” 하였고, 《脈經²⁷⁾》의 扁鵲脈法의 四篇을 보면 《扁鵲脈書》는 寸口診의 內容으로 推測할 수 있다.

그리고 B.C 3세기 戰國末의 著作으로 推定되는 馬王堆 (B.C 168년) 醫書 중 《陰陽》《足臂》의 灸經과 《脈法》 등은 經脈과 脈診에 對한 最初의 書籍으로 診脈의 部位, 方法 및 先秦時代의 比較脈診法으로 類推하여 보면 《黃帝脈書》는 經脈診脈의 內容으로 推論해 볼 수 있다^{2), 5), 6)}.

《難經本義·難經彙考¹³⁾》 “古人之於脈, 其察之固非一道矣; 然今世通行唯寸關尺之法爲最要” 하여 古代의 脈診의 方法은 多樣하다 하였고, 徐¹⁸⁾는 “《素問》《靈樞》에 三部九候診, 人迎寸口診, 寸口診 등의 脈診法이 있다.” 하였고, 脈診의 方法으로 《內經》에서는 十二經脈脈診, 人迎氣口診, 三部九候診,

尺部觸診, 氣口脈診 등이 있으며, 《難經》에서는 氣口脈診, 三部九候診, 陰陽法, 輕重法, 六十首 및 五十動法 등이 있으며, 《傷寒論》《金匱要略》《脈經》에서 氣口脈診, 趺陽脈診, 太谿脈診 등이 있다.

清代의 唐³¹⁾은 “察脈知病, ……《內經》, 仲景, 皆合人迎趺陽合診, 今獨取寸口, 盖去繁就簡, ……” 하여 診斷의 方法은 複雜한 方法에서 簡便한 方法으로 發展한다 하였다. 脈診의 演變에 있어 馬⁷⁾는 “《黃帝內經》의 三部九候診, 人迎寸口診과 《傷寒論》에서 寸口와 趺陽의 比較診脈法은 《脈法》의 比較 脈診法의 影響이다.” 하였다.

그리고 羅⁶⁾는 《史記·扁鵲倉公列傳》의 《黃帝脈書》는 十二經動脈診 → 三部九候診 → 寸口人迎診의 經脈脈診으로 演變되었고, 《扁鵲脈書》의 寸口診은 二大原流의 脈診의 融合을 試圖하여 《難經》《脈經》에서 寸關尺의 六部定位脈法이 完備되어 脈診方法을 代表한다 하였다. 또 徐¹⁸⁾는 “獨取寸口說은 越人の 醫論으로 脈診方法이 ‘精而不略’ 한다” 하였다.

이에 論者는 經脈走行을 確認하는 經脈循診의 過程 中에서 나타난 遍身診法인 《足臂》《陰陽》《難經》 및 《千金翼方》의 ‘十二經脈脈診’과 《素問》《難經》《脈經》의 ‘三部九候診’의 形成과 演變 및 脈診方法에 따른 治療方法의 變化에 對한 考察은 經脈學說의 理解와 治療方法의 開發에 필요하다고 思料된다.

十二經脈脈診은 古醫籍의 記載는 없으며 經脈의 發見과 形成의 初期에 經脈循診의 過程 中에서 十一經脈의 搏動處를 찾아 經脈의 走行을 確認하는 過程 中에서 萌芽한 概念으로 생각되며 《難經·一難¹⁰⁾》 “十二經皆有動脈” 하였고, 《千金翼方·色脈·脈診大意¹⁵⁾》 “手足三陰三陽十二經皆有動脈” 하여 十二經脈에는 各 經脈을 按診하는 動脈處가 있음을 推斷할 수 있다

《陰陽》의 各各의 經脈은 “是僮則病”의 文句가 있으며, 劉³²⁾는 “《靈樞·經脈》의 ‘脈之卒然動者, 皆

邪氣居之’와 ‘是動則病’은 ‘某’ 脈의 搏動部位가 動하면 ‘某’ 經의 病이다” 하였고, 《靈樞·經脈》 “不與衆動, 是以知其何脈之病也” 하여 各 經脈의 按診處에서 罹患된 經脈의 寒熱虛實을 살필 수 있으며^{14), 33)}, 《脈法》에는 比較脈診 즉 “相脈”과 刺絡, 灸 등의 治療方法을 記載하고 있다.

그러나, 十二經脈脈診法은 煩雜하여 醫家들이 間斷하고 臨床에서 有用한 方法 즉 三部九候診, 人迎寸口脈診, 寸口診 등이 운용하게 되었고, 《傷寒論》《金匱要略》《脈經》에 十二經脈의 按診處에서 診斷의 意義性和 쉽게 觸知할 수 있는 胃氣의 機能과 聯關된 手太陰의 氣口脈, 足陽明의 人迎脈, 跗陽脈 및 足少陰의 太谿脈등이 運用이 記載되어 있다. 그리고 十二經脈의 二十餘의 動脈處는 《針灸甲乙經》의 十二經脈의 經穴部位에서 “動脈應手”는 經穴眞僞를 살피는 取穴法으로 이용되었다¹⁸⁾.

三部九候診은 《素問》에만 나타나고 《靈樞》《難經》에는 없으며 《素問》의 人迎脈口診, 寸口診, 三部九候診 中 가장 比重이 있는 脈診法이다. 그리고 三部九候診은 煩雜한 十二經脈脈診과 비슷한 方法 혹은 十二經脈脈診을 더욱 簡便化시킨 方法으로 보이지만 十二經脈脈診과는 別途의 思想的 體系 즉 天人地의 三才思想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脈診法으로 王⁸⁾은 “十二經脈脈診과 三部九候診은 상호 다른 學派의 診斷法이며 時代의 同時代거나 十二經脈脈診이 조금 앞선 것이다” 하였고, 특히 登⁹⁾은 “三部九候診은 人迎寸口診이 발전된 脈診法으로 鍼灸經穴治療의 중요한 整體診察法이다” 하였다.

三部九候診의 上部의 三候는 頭角之氣를 診候하는 太陽之氣, 口齒之氣를 診候하는 陽明之氣, 耳目之氣를 診候하는 手太陽之氣로 陽을 貯藏하는 胃, 膀胱, 小腸의 形三臟 및 膈, 喉, 頭, 手의 上部의 氣를 診斷하는 의미이다. 中部의 三候는 膈上의 二神臟과 中土의 二形臟을 診候를 意味하며, “大腸小腸皆屬于胃, 胃脘通于胸中” 하여 大腸의 脈에서 胸中之氣와 胃氣를 兼診할 수 있다²⁴⁾. 下部의 三候에는

膈下의 三神臟을 診候하는 것을 意味하며, 上部의 地候에서 陽明의 陽明早氣 즉 陽熱之氣를 診候하고, 下部의 地部에서 胃氣는 收穀柔和之氣를 診候하며, 脾脈에서 胃氣를 診候하고 胃脈에서 脾氣를 診候할 수 있다.

그리고 三部九候診에 胃氣의 重要性和 機能의 認識하여 上中下部의 地部에 各各 胃氣와 聯關이 있는 陽明經, 大腸經 및 脾經을 配屬하였고 張¹⁹⁾은 “三部의 中에는 모두 陽明의 胃氣가 있어 天地人의 三者는 上下의 交互의 理致가 있다” 하였다.

三部九候診에는 《脈法》에 없는 身體의 肥瘦에 따른 形氣의 虛實의 診斷概念은 《千金翼方·色脈·脈診大意¹⁵⁾》에 人의 大小, 長短, 性質의 緩急 및 形의 苦樂으로 擴大되어 脈診에 收容되었고, “左手于足上去踝五寸而按之, 右手當踝而彈之”의 足內踝上의 彈診法을 全¹⁴⁾은 命門을 診斷하는 意味로 解釋하였고, 黃³⁴⁾은 “手足의 少陰經의 神門, 太谿의 脈을 通하여 精神의 根本을 探求한다” 하였고, 張¹⁹⁾은 生陽之氣를 살피 生死를 診斷하며 諸陽을 主管하는 太陽之氣를 診候하는 方法으로 論述하였다. 그리고 足踝彈診法은 《脈法》의 “相脈”의 方法과 同一하며 《素問》의 治療法이 刺絡을 爲主한 治療法으로 大量出血의 위험을 防止하기 위한 方法으로 思料된다.

三部九候診의 察九候의 方法은 《脈法》의 比較 脈診法에서 演變痕迹을 볼 수 있으며, 三部九候診의 上下左右의 診斷과 《素問·脈要精微論》 “上竟上, 下竟下”의 概念을 《診家樞要³⁵⁾》 “病脈이 上部에 있으면 上病, 下部에 있으면 下病, 左部에 있으면 左病, 右部에 있으면 右病이다.” 하여 氣口脈으로 演變되어 運用하였다.

그리고 《難經·十八難》에는 三部九候診을 寸關尺의 六部定位脈診法에 寸關尺의 浮中沈의 三部九候로 收用하였고¹⁰⁾, 《全生指迷方³⁶⁾》에서 “人迎을 天으로 하고, 寸口를 人으로 하고, 跗陽을 地로 한다” 하여 三部의 大小遲數의 相應齊等으로 三部九

候診의 簡便化를 試圖하였다. 그리고 《脈經·卷十·手檢圖》의 奇經八脈의 脈診인 氣口九道脈은 《難經》의 寸關尺의 浮中沈의 三部九候診을 利用하여 十二經脈과 奇經八脈의 部位를 定位하여 變用하였다²⁷⁾.

그러나 三部九候診은 刺絡을 主로 하고 毫針이 보조가 되는 《素問》의 治療方法에 有用하며, 毫針의 이용도가 증가하고 漠然한 經絡治療에서 十二經脈의 三陰三陽의 經脈體系에 따른 病變 現象의 治療에 刺絡, 灸 및 毫針의 治療比率이 比較적 大等한 《靈樞》에서는 人迎氣口診이 有用하며, 井榮輸經合의 穴에 五行의 性格을 附與하여 陰陽五行學說을 應用하는 《難經·六十九難》에서는 寸口診을 採用하였기 때문에 三部九候診은 점차로 消滅된 것으로 推測할 수 있다⁶⁾.

한편 張²⁴⁾은 “寸關尺의 浮中沈의 三部九候法은 《素問》의 三部九候診과는 本旨가 同一하지 않다. 上古의 針法은 三部九候의 脈證으로 九臟의 盛衰를 調節하였다. 현재는 穴에서 診斷하므로 經脈의 虛實의 理致가 사라지고 없다. 그리고 三部九候診은 針과 藥에도 適用할 수 있다.” 하였고, 張¹⁹⁾은 “三部九候診은 三部의 中에는 모두 陽明의 胃氣가 있어 天地人의 三者는 上下의 交互의 理致로 十二經脈, 肝心脾肺腎의 神五臟 및 胃小腸大腸膀胱의 形四臟의 三部의 氣를 診斷하여 針治療를 하고, 三部의 脈을 診斷하여 生死를 구분하는 診法이다” 하였다.

《難經》以後의 醫家들은 《素問》《靈樞》의 三部九候診, 人迎氣口診등의 脈診意味를 收容할 수 있고, 五臟을 五行의 概念으로 認識하여 五行의 相生, 相剋 및 相侮의 理論으로 五臟間에 轉變하는 病理變化를 脈象의 變化로 觀察하여 治療에 運用이 可能하고, 輕重法, 季節의 春弦 夏鈞 秋毛 冬石의 脈象, 節氣에 따른 六經脈, 脈搏의 至·損脈, 五十動 및 六十數등의 理論의 方法을 收容하여 運用할 수 있는 手太陰의 太淵穴 部位의 寸口脈의 寸關尺 六

部定位脈診法을 代表的인 脈診方法으로 運用하였다. 그리고 張¹⁴⁾은 《難經》의 獨取寸口說을 脈學의 發展史에 새로운 里程碑로서 “百世不祧之大經大法” 하여 높이 評價하였다.

十二經脈의 動脈處를 按診하는 三部九候診의 遍身診法은 經脈의 虛實을 判斷, 經脈과 脈診의 相關性에 關한 理解의 폭을 넓힐 수 있다. 그리고 針灸治療와 脈診의 淵源을 窮究하면 經脈學說의 研究, 經絡辨證의 應用 및 經脈治療法의 開發과 檢定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IV. 結 論

經脈走行을 確認하는 經脈循診의 過程 中에서 萌芽한 遍身診法의 十二經의 動脈處에 三才思想을 導入하여 人體를 上中下의 天人地의 九候를 診脈하는 ‘三部九候診’의 經脈診斷에 關하여 研究한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三部九候診은 《素問》에만 나타나고 《靈樞》《難經》에는 없으며 《素問》의 人迎脉口診, 寸口診, 三部九候診 中 가장 比重이 있는 脈診法이며, 天人地의 三才思想을 바탕으로 十二經脈脈診을 簡便化시킨 方法으로 針과 藥에 동시에 適用할 수 있는 整體 診察法이다.

2) 三部九候診의 上部의 三候는 胃, 膀胱, 小腸의 形三臟 및 膈, 喉, 頭, 首의 上部의 氣를 診候하고, 中部의 三候는 膈上의 二神臟과 中土의 二形臟을 診候와 大腸脈에서 胸中之氣와 胃氣를 兼診하고, 下部의 三候에는 膈下의 三神臟을 診候하고 脾와 胃는 膜으로 相連하여 胃氣는 脾脈에서 胃氣, 胃脈에

서 脾氣를 診候한다. 그리고 三部九候의 三部의 中에는 胃氣의 作用으로 天地人의 三者는 上下交互의 作用이 있다.

3) 三部九候診에서 足內踝上의 動脈彈診은 《脈法》의 “相脉之道”와 類似하고, 察九候의 方法은 《脈法》의 比較 脈診法의 演變痕跡을 볼 수 있으며, 《脈法》에 없는 身體의 肥瘦에 따른 氣의 虛實의 概念은 《千金翼方·脈診大意》로 擴大되었다. 그리고 三部九候診의 上下左右의 脈診概念과 《素問·脈要精微論》 “上竟上, 下竟下”의 脈診概念은 寸口脈에서도 適用하여 運用하였다.

4) 三部九候診은 《難經·十八難》의 寸口脈의 六部定位脈診法에 寸關尺의 浮中沈의 三部九候로 收容되었고, 《脈經·卷四·辨三部九候脉證》에서 《難經》의 三部九候診에 浮, 沈, 牢, 結, 遲, 疾, 滑, 澁脉에 따라 證을 分類하고 命門, 四時脉 및 尺膚診과 結合하여 運用하였고, 또 《脈經·卷十·手檢圖》의 奇經八脈의 診斷法인 氣口九道脈의 運用에 《難經》의 三部九候診의 方法이 利用되었다.

5) 三部九候診은 豫防醫學을 重視하고 一陽一陰의 表裏經을 運用하는 《素問》의 刺絡療法에 有用한 脈診法이며, 人迎脉口診은 陰陽脈診法으로 三陰三陽의 運用에 따른 刺絡療法의 利用도가 높고 毫針의 利用도가 높은 《靈樞》의 治療法에 有用한 脈診法이며, 寸關尺의 六部定位脈診은 井榮輸經合의 穴에 五行의 性格을 附與하여 陰陽五行學說을 應用하는 《難經·六十九難》의 治療法에 有用한 脈診法이다. 그리고 時代에 따른 醫學의 思想의 背景 및 治療方法의 改變에 따라 三部九候診은 점차로 消滅된 것으로 思料된다.

V. 參考文獻

1. 嚴建民. 中國醫學起源新論. 北京: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99:122, 37-145, 182-185.
2. 龍伯堅. 黃帝內經概論. 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0:3-6, 41, 79-89.
3. 馬繼興. 馬王堆醫學文化. 上海:文匯出版社. 1994:22-27.
4. 金富煥. 倉公傳에 나타난 秦漢 醫學思想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84-94.
5. 周一謀·肅佐桃. 馬王堆醫書考注. 天津: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88:42-45.
6. 羅慶燦. 黃帝內經의 脈理法과 診脈法の 變化에 관한 研究, 서울:동국대학교 한의과대 연구소 논문집. 1993;2(1):82, 99-100.
7.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274-320.
8. 王洪圖. 黃帝內經研究大成. 北京:北京出版社. 1997:1328-1329.
9. 登良月. 中國針灸經絡通鑿. 青島:青島出版社. 1996:206.
10. 何愛華. 難經解難校釋.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2:5-7, 26-29, 295-307.
11. 南京中醫學院 校釋. 難經校釋.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79:58-59.
12. 王九思. 難經集注, 台北:臺灣中華書局. 1985: 5-10.
13. 滑壽. 難經本義.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5: 1-4, 6-8, 32.
14. 張山雷. 張山雷醫集·難經洵注箋正.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5:57, 349-350.
15. 李景營. 千金翼方校釋.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8:385-386.
16. 馬蒔.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8:159.
17. 葉霖. 難經正義. 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1:1
18. 徐靈胎. 徐靈胎醫學全書·難經經釋.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7.
19. 張志總. 黃帝內經素問集注. 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84-93.
20. 山東中醫學院·河北中醫學院. 黃帝內經素問校釋.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82:286-302, 340, 321-325.
21. 河北中醫學院. 黃帝內經素問校釋.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82:108-111.
22.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서울:大成文化社. 1986:183-188.
23. 王冰.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5:129-137.
24. 張介賓. 張氏類經. 서울:一中社. 1992:118-121, 173
25. 吳崑. 黃帝內經素問吳注評釋. 北京:中醫古籍出版社. 1988:124-131, 166-167.
26. 安營基. 經穴學叢書. 서울:成輔社. 1986: 318-319.
27. 福州市人民醫院. 脈經校釋.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84:144-163, 640-666.
28. 李滾. 身經通考. 北京:中醫古籍出版社. 1993: 171-174.
29. 何夢瑤. 醫編.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4: 507-511.
30. 沈金鰲. 雜病原流犀燭.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4:8-9.
31. 唐容川. 唐容川醫學全書·中西滙通醫經精義.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59.
32. 劉孔藤. 經絡辨證概論. 廈門:廈門大學出版社. 1989:70.

33. 河北中醫學院校釋. 靈樞經校釋(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264-266.
34. 黃元御. 黃元御醫學全書·素問懸解.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36.
35. 滑壽. 醫經病源診法名著集成·診家樞要. 北京: 華夏出版社. 1997:659.
36. 王昶. 歷代中醫珍本集成(十)·全生指迷方. 上海: 上海三聯書店出版. 1990:2.